

하림 “AI 보상금 가로챈 사실 없다”

국감서, 병아리 단가 관련 허위 명세서 작성 주장... 농장주 개인 자료 사실 확인

〈하림은 최근 하림 등 닭고기 계열 사들이 AI 보상금을 ‘백 주부르 듯’ 가로챈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의원실의 의원실시 배포한 보도 자료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AI 살처분 피해농가의 정부 보상금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아리 계약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유명세서를 만들고’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지난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와 지난 12일 농림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유명세서를 꾸민다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림이 병아리 공급 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

가에 제공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가 회사가 작성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창에서 〈하림과 토종닭을 계약 사용하던 유모씨는 2014년 1월27일 농장 인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자치단 체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보상 관련 서류(병아리 분양증, 사료공급 전표, 사유일지 등)를 작성해 전북 고창군에서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AI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며 병아리와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이에 따라 〈하림이 공급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 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던 것.

정부는 당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

〈하림은 2014년 2월10일 해당 농가에 병아리 공급가격 450원(계약단가)으로 계산된 공식 사유 정산서를 제공했으며 농가와 협의를 통해 마리당 520원을 병아리 공급가격으로 결정하여 최종 정산했다.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된 마리당 800원의 보상금은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이었던 점,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재입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리당 520원으로 농가와 합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는 정부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아 〈하림에 병아리 공급대금 520원*41,000수=2132만원, 사료대금 6799만7000원, 기타(백신 접종비 등) 143만8000원 등 총 9075만4000원을 상환하여 나머지 2943만4000원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유보상비로 남겼다.

당시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의 토종닭 사유일령은 45일령으로 통상적인 출하 85일령보다 40일 정도를 덜 키운

상태였다.

이와함께 〈하림은 김의원이 병아리 가격을 계열화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육계 병아리 가격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도 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아리와 사료를 표준계약서에 따른 단가로 공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 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챈다는 의혹 제기는 30여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민 기자



전북도 식품명인전 ‘관심 집중’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진행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지역 콘텐츠의 대중적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한 특별 기획전시인 ‘전북도 식품명인전’이 행사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6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된 전북 식품명인 10인들이 만든 상품과 그들의 철학을 담은 ‘전북도 식품명인전’을 마련,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 명품주로 사랑받고 있는 송화백일주, 이강주, 축력고 등 이름난 들어도 알 수 있는 전통주를 집중 조명한다.

여기에 천리장, 감식초 등 다양한 품목의 명인들의 상품을 전시해 청

정지역인 전북에서 생산되는 좋은 식자재, 풍부한 손맛,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들어지는 명인들의 상품 특성과 가치를 소개한다.

아울러 우리 식품명인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패널전시를 통해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시음홍보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축력고의 송명섭 명인, 가문의 천리장 비법을 부활시킨 윤왕순 명인 등 다양한 명인들이 시연에 참여해 음식비빔방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 식품명인전’은 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유니버스’ 무상 업그레이드 지원

현대자동차,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안전 사양 추가 장착

현대자동차(주)가 10월부터 대형 버스인 ‘유니버스’에 일부 안전 사양을 선택해 구매하는 고객에게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S)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브랜드로서 현대자동차가 안전한 도로 문화 정착에 앞장서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버스 안전 사고 발생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월부터 대형 버스 대상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규 마련에 앞서 현대자동차가 안전 사양 무상 업그레이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유니버스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구매 고객(출고 기준)을 대상으로 250만원에 해당되는 전자제어시스템(EBS) 및 차체자

제제어장치(VDC)를 옵션으로 선택할 시 차선이탈경보장치(LDWS)가 포함된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S)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한다.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의 옵션가격이 4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180만원에 상당하는 안전 사양이 무상으로 장착되는 셈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안전 사양 추가 장착만으로도 버스 기사들의 안전 주행을 도와 대형 사고 발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고객들의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홍복 기자

‘카카오택시→카카오’로 모든 이동 서비스 제공

카카오택시가 모든 이동 수단을 망라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바일 택시 호출 앱 ‘카카오택시’를 ‘카카오’로 새롭게 명명할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달중 선보일 ‘카카오’는 택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주차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으로 선보일 모

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전문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T 라는 이름에는 카카오택시가 모든 이동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브랜드로 진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택시(Taxi)’의 T가 모든 이동 수단을 뜻하는 ‘Transportation’(교통)으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뉴시스

이스타항공-씨트립,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진행

이스타항공이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과 함께 단독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이용하면 4개 국내선 노선과 10개 국제선 노선의 11월 출발 항공권을 최대 10%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부산-제주, 군산-제주, 청주-제주 등 4개 노선을 편도 최저가 (세금 별도) 1만8900원부

터 구입 가능하다.

일본 노선의 경우 인천-도쿄, 인천-오사카, 인천-삿포로, 인천-후쿠오카, 부산-오사카는 최저가 3만6300원부터 시작 가능하다.

동남아 및 중국노선은 총 4개로 인천-홍콩은 편도 최저가 6만2100원, 청주-연길은 7만1100원, 인천-타이베이 6만35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는 8만1900원부터 구입 가능하다. /뉴시스

주세 3조 2375억원 최대 기록

10년간 누적 주세 28조원 집계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정부가 주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28조35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38356억원으로, 2007년 2조5227억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으며 2016년 사상 최대인 3조2375억원을 기록했다.

주종별로는 맥주판매에 따른 주세 수입이 경우 전체 주세의 절반에 가까운 13조2372억원(46.7%)이었으며, 희석식 소주는 10조3568억원(36.5%)을 기록했다.

이해 해외로부터 수입된 맥주·위스키 등 수입주류가 3조1954억원(11.3%)을 차지했다. 위스키는 4456억원(1.57%)이었으며 과실주 2628억원

(0.93%), 탁주 1692억원(0.6%) 등으로 조사됐다.

수입 주류의 주세 증가폭이 71.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위스키는 2007년 1170억원에서 작년 110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고 위스키의 출고량 역시 10년 전 1만1키 남짓에서 지난해 470키로 5%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주류출고량(주정포함)은 전체 3845만4901키로 조사됐다. 주류출고량은 2007년 359만8863키→2010년 373만2713키→2012년 393만7402키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처음으로 400만키를 넘어섰다.

출고량은 맥주 51.9%(1996만7672키), 희석식소주 24.5%(945만410키), 탁주 9.3%(360만772키), 주정 7.6%(295만710키), 수입주류 4.5%(173만6667키), 탁주 0.6%(39만9667키) 순이었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p>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다온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p>
--	---